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97 호 현대불교
2020년 6월 17일(음 4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한 걸음을 떼도 좀 더 인내성 있고 무겁게 떼어 놔야 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 모든 믿음과 패기가 없고 용맹정진이 없다면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한 걸음을 떼도 무겁고 좀 더 인내성 있게 떼어 놔야 할 거고, 생각을 해도 좀 무겁게 하면서 종종걸음을 걷지 않도록 하고, 한 걸음을 떼어 놔도 백 걸음 못지않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패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나무와 같이 마디마디는 있습니다마는 속은 속대로 같이 통해 있고 거죽은 거죽대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나 진배없는 전체 이 한 몸을 우리가 우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음과 양을 통해서 한데 합쳐진 우리 이 생명은 각자 각자 이 몸뚱이 하나에 생명들이 수억 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을 한데 포섭해서 인연에 따라서 여러 마음들이 종합해서 한데 모인 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것만치 받는 겁니다, 죄도 선도. 그러니까 희미하게 넘기지 마시고 좀 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패기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명들이 한데 합쳐진, 그렇게 구성된 인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저런 생각이 들고, 수만 가지의 생각이 돌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고 가라앉히고 하는 보당은 바로 자기 선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구성된 선장, 즉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안팎의 보당을…, 즉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가 자기 한 몸뚱이에 구성돼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도 저게 맞뚫렸습니다. 바깥으로 열고 나가는 것도 저 문 저걸 붙잡아야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도 저걸 붙잡아야 합니다, 문을 열려면. 본래는 문이 없는데도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문이 있는데도 문이 없다는 것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체가 없으면서도 역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려도, 상대성 원리기 때문에 안의 보당을 누르는 것도 바로 이 보당이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이려도 그 보당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당 하나에, 안팎이 붙어 있는 뚫린 보당 하나에 줄이 만 개가 있다면 만 개가 죄 각각이라는 얘깁니다. 무전통신 줄이, 즉 법망에 그 무전통신 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붙어 있는 줄에 이건 우주의 보당을 누르는 우주 줄이고 이거는 삼천대천세계의 줄이고 이것은 또 소천세계 중천세계, 또는 이거는 우리 몸에,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종합병원이라고 그런다면, 종합 원자력 발전소라면 요 줄은 요 줄대로 여기에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 줄이라든가, 지능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능 줄이 거기 있으니까 그 보당을 눌러서 하는 것은…, 요걸 요렇게 얘기해야 좋겠군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몸에 닿고 상대성에서 오는, '이게 까다롭게 넘어가겠구나.' 또는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안 돌까.' 또 '나는 생활하는 데에 왜 이렇게 잘못될까.' 그 다양하게 수많은 가지가 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보당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보당 줄에 있어요, 전부. 가설이 돼 있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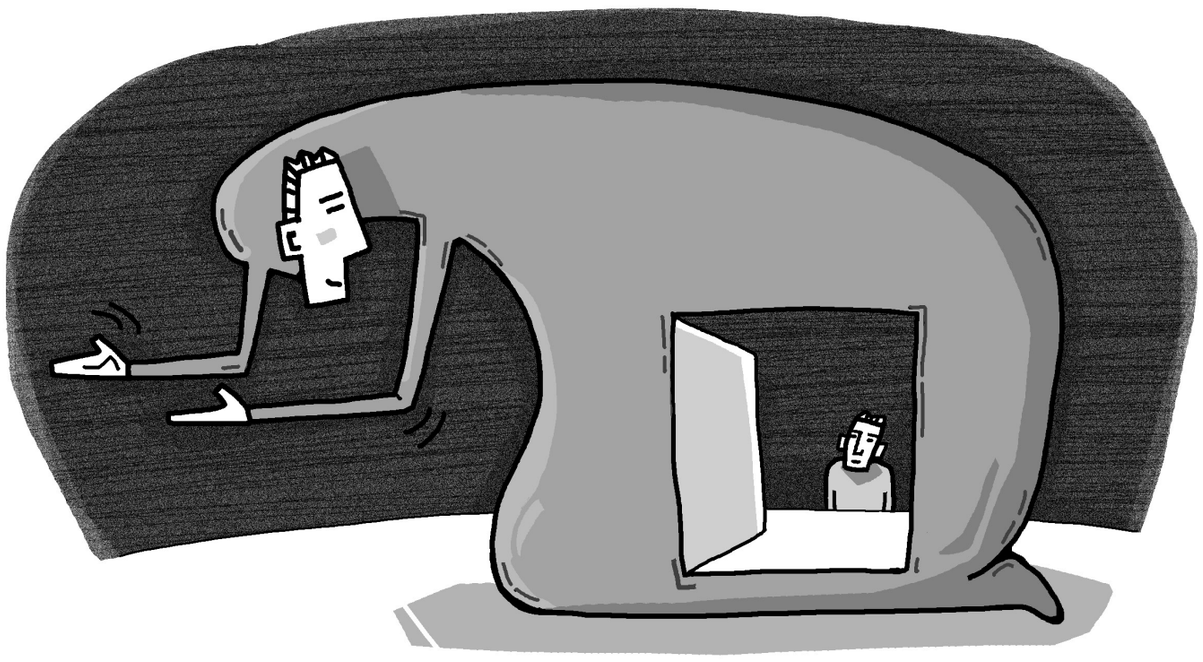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 가설된 거기에 내가 '아, 이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안 넘어갈까? 왜 머리가 안 돌까?' 할 때는, 지능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이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지능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능 줄의 보당을 누르는데 안으로 '아, 이건 여기서밖에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바로 지능에 관한 줄에 의해서 이 대나무 속이 뚫려서 가듯이,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대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능이 만약에 발달이 되지 않았다면 거기 물리가 터지질 않습니다. 물리가 터지지 않음으로써 지혜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지능이다' 또는 '물리가 터져야 한다' 또 '지혜가 생겨야 한다' 하는 것이 그게 마디만 있다 뿐이지 한 줄입니다. 이름만 각각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지능과 물리가 터져야 하고 지혜가 생겨야 지혜가 모든 만법을 응용하는 데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만 가지 법망의 그 무전통신 줄이, 세포 줄이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한 가닥으로써 한 보당을 누르는데 지금 까다롭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몸 안의 생명들과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지만 한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엑스 자로 넘어갑니다, 엑스로. 이게 둘이 한꺼번에 체인지가 돼 가지고 넘어가서 하나로 책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안이나 바깥 일이나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똑똑히 얘기를 해 드릴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면 안으로 항상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지켜보고 자기가 해 보고, 남에게서 알려고 하지 말고, 책을 보고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그것을 굴리면서 자꾸 실험을 해 보면서 자기가 터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일거삼득이 될 겁니다. 그것이 행선이며 참선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용(用)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석존께서 유(有)의 법의 모든 문제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무(無)의 법을, 무루의 법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유루와 무루를 한데 합쳐서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마디 하나하나, 요 세 계단이 마디가 있을 뿐이지 다 통해 있는데 통해 있는 마디 마디를 한데 합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바쁜 시기에 그대로 일거삼득이 되게끔 일심으로 들게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건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죠? 여러분이 큰 바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바다입니다. 요만한 물방울 하나라고 생각할 땐 물방울 하납니다. 이건 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이룰 수도 있고 쪼끄맣게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생각해 가지고 이건 크다 이건 작다 이렇게 걸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육안으로 보는 우리 습에 의해서 보는 눈이고, 이건 습이 아닌 체가 없는 내 한 눈에서, 속에서 그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크게 내가 봤다 하면 큰 거고 작게 봤다 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체가 없는 그 마음은 항상 수만 가지의 보당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장이 보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보당은 다 자기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와서 닿는 대로 그것이 쪼끄만 거냐 큰 거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큰 원자력 보당에다가 한번 굴려서 누르면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이 따로 없지만 이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이가 뭐 저렇게 말을 해? 이름도 없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 내에서 무르익는 보리 이삭도 있듯이, 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서 우리는 역력하게 배가 고픈 건 고픈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뜬구름 같으면서도 배가 고픈 건 배가 고픈 거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지혜에 달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능, 즉 말하자면 지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믿음과 패기와 모든 것이 한데 합쳐지기 이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지마는 이걸 사용을 못 한다면, 용을 못 한다면 이거는 천만금을 두고도 내가 쓰지 못하는, 못 쓰는

☞ 18면으로 계속